어린이 마음으로 천진불 그려보아요

여진미술관, 천진불 그리기 대회

어린이들이 그리는 불교미술은 어떨까. 여진불교미술관(관장 이진형)은 오는 10월 22일 미술관 야외전시장에서 제5회 어린이 천진불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조계종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매년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의 동심을 도화지에 그려냄과 동시에 불교미술에 대한 창의적 기량을 뽐내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에는 대전시교육감상과 장학금 100만원이 수여되며, 조계종 총무원장상과 유성구청장상 등 총 6개 분야의 51명 참가자들을 선정해 시상과 함께 장학금을 수여한다.

이진형 관장은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의 모습을 그려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게 해주기 위해 대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여진불교미술관에서는 2016미술주간인 10월 23일까지 관내 포토존 이벤트를 26일에는 문화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미술관 야외전시장에서 '퓨전 국악 연주회'를 개최한다.

신성민 기자

불심으로 피운 꽃 마음으로 머물다

보림꽃예술회 19일까지 전시회

(사)한국꽃꽂이협회 산하 보림꽃예술중앙회(회장 보림 지연)는 10월 18~19일 현대백화점 서울 미아점 10층 사파이어홀서 제6회 보림회 꽃꽂이 전시회를 개최한다.

보림회 창립 25주년을 기념해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 주제는 '마음 머물다 花·畵·話'다. 전시회에는 1972년부터 시작된 꽃길 역사와 1992년 보림꽃예술중앙회 창립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회장 지연 스님 문하서 불교꽃꽂이를 계승해온 회원들 작품 90여점을 선보인다. 전시회는 △회장 지연 스님의 여정(8부) △제자들의 선화 △불교의식 장엄화 △기초부터 창작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전시회는 '함께하는 문화마당'도 진행된다. 문화마당은 △남성 4중창 육화림 솔리스트 앙상블 △황명주 피아노 독주 △현악4중주 플러스 앙상블 △기원사합창단 찬조출연 △명원문화재단 궁중 전통다례 시연 △꽃다발 만들기 체험 등으로 꾸며진다. (02)997-4560

윤호섭 기자

'일상 속 성찰' 담아낸 시 같은 그림들

오원배 등 중견작가 18명 한 자리서 전시

필갤러리 개관展, 10월 18일부터
동·서양화 30점 1·2부 나눠 전시
사유·감성 작품 만나는 기회 '기대'

현대의 과다한 정보에 오래 머무를수록 회상과 기억, 느린 사유, 한가로운 생각의 시간은 줄어든다. 그래서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사유와 성찰하는 '느린 시간'이다. 완연한 가을, 시 한편을 접하며 행간을 읽어가듯 그림을 통해 사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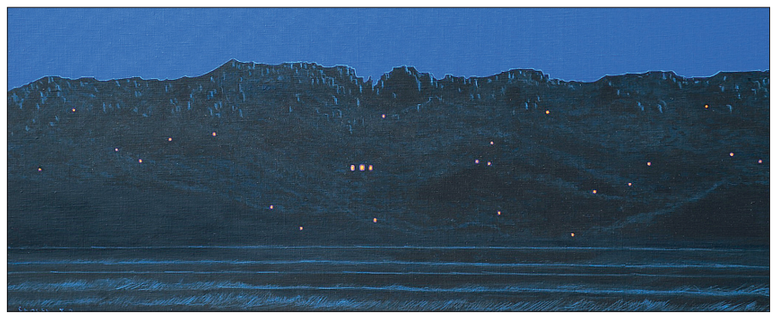
서울 용산 필 갤러리는 개관을 기념하는 전시회인 '연(聯)과 연(聯) 사이'를 10월 18일부터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가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 동·서양화단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중견 작가 18명이 참여한다는 점이다.

전시 기간도 1부 서양화(10월 18일~11월 17일)와 2부 한국화(11월 22일~12월 21일)로 나눠 진행된다. 작가로는 오원배 동국대 부총장을 비롯해 권여현, 김태호, 윤동천, 이석주, 이종구, 정용일, 주태석, 황주리, 김선두, 문봉선, 신하순, 유근택, 이인, 이종목, 이주원, 정종미, 조환 등이 참여하며, 30여 점의 회화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참여 작가들의 면면을 보면 누구나 한번쯤 시간을 내어 가봄직한 전시다.

이들 작가들은 '일상에서의 성찰'이라는 일련의 주제로 이야기를 던진다. 작가들은 서양화, 한국화 등 자신만의 매체를 사용하여 자신의 경험을 고유한 방식으로 전시 공간에 감각적으로 녹여낸다.

이 같은 중견 작가들의 합동전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다양한 미술운동과 경향이 유행처럼 빠르게 바뀌면서 반복적인 작품을 양산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원숙한 중견 작가들이 관조적 시선으로 일구어낸 작품들로 꾸려진 이번 전시는 매우 반갑다.


서양화가 오원배 동국대 부총장의 작품 '무제'. 종이에 꼴라주로 만들어졌다.


이종구 중앙대 교수의 '달마산'. 캔버스에 아크릴릭으로 표현됐다.

이번 전시 작가들의 작품 수준과 예술가적 가능성은 충분하며, 작가적 정체성과 고유한 미의식, 사유의 세계도 엿볼 수 있다. 일상에서의 성찰이 담겨있으면서도 작가들의 감성의 폭이 한층 더 깊이 담긴 '진짜 그림'들을 마주할 수 있는 경험은 관람객들에게도 즐거운 경험이 될 것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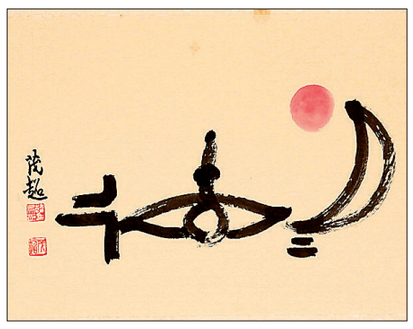
필갤러리는 "짧지만 함축적으로 표현한 시(詩)의 행(行)과 연(聯) 사이에 무형의 간격처럼 '연과 연 사이'에서 사유로 되살아난 작품들로 전시를 기획했다"면서 "전시된 30여 점의 평면 작업들에는 작가와 그려지는 대상이 서로 담박하게 만나는 시도가 담겨있으며, 자신의 사유를 시각화한 작품들은 잔잔하고 깊은 여운을 줄 수 있다"고 전시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과 연 사이'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02)795-0046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붓과 먹으로 표현된 '마음의 소리'

한민정 작가, 초대 개인전
29일까지 서울시의회 중앙홀
마음담은 이모그래피 선보여
허회태 문하서 수학한 재원



한민정 작가의 작품 '明明德 – 밝은 덕을 밝히다(사진 왼쪽)'와 '달 안에 비쳐진 나의 마음(사진 오른쪽)'

붓과 먹은 힘의 강약에 따라 선의 굵기가 정해지고, 선들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낸다. 어쩌면 자신의 감정과 사유를 오롯이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일 수 있다. 한민정 작가의 서화도 자신이 가진 마음의 소리를 붓을 통해 풀어낸다.

한민정 작가는 오는 10월 29일까지 서울시의회 본관 중앙홀에서 초대 개인전 '마음의 소리'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이모그래피 서화들이 전시된다.

한민정 작가는 이모그래피(Emotion과 Graphy의 합성어)창시자로 알려진 무산 허회태 선생의 제자로 붓과 먹을 통해 세상과 소통을 추구하는 이념이 스승과 닮아 있다. 그는 유학준비를 하던 중 잠시 서예를 배우기 위해 무산 서예연구원을 찾았다가 먹색만으로 삼라만상의 감정을 표현 할 수 있는 이모그래피의 매력에 빠져 유학을 포기하고 문인화에 심취하게 됐다.

일반적 서예가 아닌 상형적 문자의 표현을 회화적 감성으로 이끌어낸 이모그래피에 매료 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민정 작가만의 독특한 문인화가 만들어졌다.

전시작품 중에 '心中 - 마음속의 소리', '明明德 - 밝은 덕을 밝히다', '달 안에 비쳐진 나의 마음' 등은 인간 본연의 심성을 함께 이야기 하고자 작가의 순수성을 바탕으로 완성됐다. 감정 속에서도 인간이 항상 가져야 할 덕의 마음을 심의 소리로 좋은 글과 그림으로 설레는 마음을 표현했다.

고전적이고 딱딱한 느낌으로 알고 있는 일반 사람들의 서예, 문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전시회를 통해 조금이라도 깨고 싶은 것이 작가의 바람이다.

한민정 작가는 "상형문자로 더 그림화 시켜 다양한 기법을 이용한 좋은 글과 그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작품을 보여주고 싶다"면서 "아이들에게 서예와 문인화로도 현대적인 작품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꿈을 주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02)3702-1400

신성민 기자

올해 불교음악 발전 공로자는 누구?

조계종 불교음악원, 제3회 불교음악상 공모

21일까지 후보자 접수

조계종 총무원과 불교음악원은 오는 10월 21일까지 불교음악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대상자는 △조계종 신도로 불교음악 발전에 공로가 큰 자 △전통 및 현대 불교음악 위상 제고에 공로가 큰 자 △기타 불교음악 발전과 홍포에 공로가 큰 자 등이며 외국인 및 단체도 포함한다.

지원 분야는 불교음악 개발(작사·작곡·편곡), 보급(연주·가창), 연구(학술·이론), 기타 불교음악 발전 등이다.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 게재된 추천서 및 공적조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공적사항 증빙서류, 후보자 이력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총무원장상인 대상은 상금 500만원, 신인상은 상금 300만원이 시상된다. 후보 접수 후 심사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하며 11월초 개별통보될 예정이다.

시상식은 12월7일 오후 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된다. (02)3218-4866

신성민 기자

사찰서 한국 전통무예를 만나다

골굴사, 11월 5~6일 무예대회

선무도 총본사 경주 골굴사(주지 적운)에서 한국 전통무예를 만날 수 있는 무예대회가 열린다.

골굴사는 오는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제14회 화랑과 승군의 후예 전통무예대회를 개최한다. 무예대회에 앞서 승군과 호국영령들의 고혼을 기리기 위한 위령 수륙재도 열린다.

6일 오후 1시부터 본행사로 열리는 무예대회에서는 한국불교 승가의 비전 무술인 선무도를 비롯해 태원 스님의 풍류도, 무의단공, 영가무도 등의 시연이 이뤄진다. 3시부터는 평양민속예술단 등을 특별초청해 산사예술제를 진행한다. (054)744-1689

신성민 기자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